



광남일보





광주RISE센터, 직업계고-대학 연계 강화
광주시·교육청 등 간담회...취업 활성화 논의



함평군, 미래 지역발전 SOC 유치 나선다
RE100 국가산단 등 전남도와 17개 사업 추진



고흥, 2GW 해상풍력 단지 개발 본격화
산업부 공모 선정...사업비 39억여원 투입



전남체육인 대상 '지방체육 발전' 소통 행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학교체육 활성화 등 논의

조간 제7864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음력 5월 22일)

늘어가는 노동시장...‘실버크로스’ 고착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청년층 주춤〉

고령화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생계형 일자리를 찾는 은퇴자 등이 늘면서 60세 이상 고령층이 노동시장의 주류로 자리잡고 있다.

광주에서는 10년 전 고령층이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전체 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율·경활률)을 추월하는 이른바 ‘실버 크로스’ 현상이 처음 벌어진 이후 고착화 되고 있으며, 전남은 20여년 전부터 본격화 됐다. 고용 시장의 주인공이 이제 청년층에서 고령층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이다.

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기준 광주의 60세 이상 인구의 경활률은 46.5%를 기록했다. 지역 내 60세 이상 인구의 절반 가량이 일을 하거나 구직 중이라는 의미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뜻한다. 실업자가 포함되는 것은 실업자는 최근 4주간 구직을 위해 활동한 사람을 의미해서다.

해당 수치는 관련 집계가 시작된 1999년 이후 가장 높았던 지난해 2분기(47.1%)에 이어 3개 분기 만에 다시 상승 전환했다.

광주의 60세 이상 인구의 경활률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2분기까지 20~30% 대를 보여

1분기 광주 60세 이상 46.5%...15~29세 40.1% 그쳐
전국 10곳 확대...고령화·경기침체로 생계형 구직 급증

왔던 광주 고령층 경활률은 직후 40%대를 넘어섰고, 이제 50%에 근접해 가고 있다.

반면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15~29세) 경활률 추이는 답보 상태다. 통계 집계 시작 당시 41.6%로 출발한 청년층의 경활률은 올해 1분기 40.1%로 수치상 큰 변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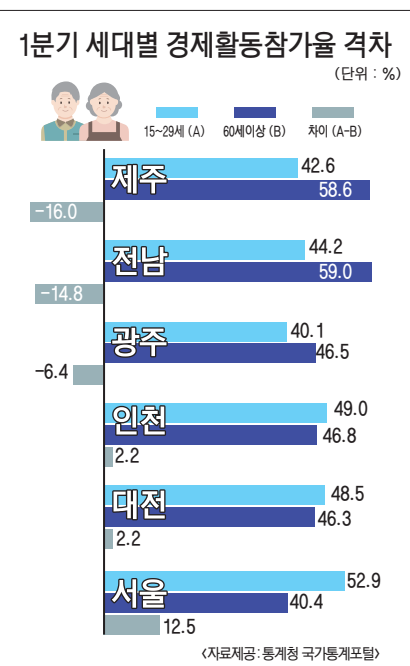
이처럼 청년층의 경활률이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노령층의 수치가 치솟으면서 광주에서는 지난 2016년 2분기 실버크로스 현상이 처음 벌어졌다.

이후 2022년 2분기(청년층 42.1%, 노령층 42.3%)를 기점으로 노령층의 경활률이 청년층을 뛰어넘는 현상이 고착화 되고 있다.

전남에서는 고령층의 경활률이 더욱 두드러졌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그 해(청년층 41.1%, 고령층 58.6%)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단 한번도 청년층의 경활률이 고령층을 넘어선 적이 없다.

지난해 3개 분기 연속(2분기 61.8%, 3분기 60.0%, 4분기 60.4%) 고령층 경활



률이 60% 대를 기록한 전남은 올해 1분기 59.0%로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실버크로스 현상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고령층의 경활률이 청년

층보다 높았는데, 가장 심화한 곳은 제주로 격차가 -16.0p에 달했다.

전남 역시 -14.8%p를 보이며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꼽혔고, 경북(-12.0%p), 경남(-11.0%p), 전북(-10.6%p), 세종(-8.1%p), 광주(-6.4%p), 충북(-3.4%p), 강원(-1.2%p), 대구(-0.4%p) 등지에서도 역전 현상이 있었다.

이처럼 청년층의 경제활동 비율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구직을 아예 포기한 ‘쉬었음’ 인구 증가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달 청년층 ‘쉬었음’(39만 6000명)은 1년 전보다 3000명 줄며 13개월 만에 감소했지만, 올해 5월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여전히 증가세다.

제조업·건설업 등 양질 일자리 부족, 대기업들의 경력직 채용 선호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런 모습은 고령층이 주류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또 노령층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것을 무조건 좋게 볼 일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높은 노인 빈곤율, 연금 수령 시기 연장에 따른 소득 공백 등 현실에 비춰보면 상당수가 생계형 노동에 시달리는 은퇴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16일 성남 서울공항 공군 1호기에서 인사하고 있다.

광주시, ‘대선공약·골목경제 상황실’ 가동

강기정 시장 TF회의...대선공약 국정과제 전략 점검

AI부처 신설·특별법 제정, 사법기관 지방 이전 추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린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한 가운데 광주시가 ‘대선공약 서울상황실’과 ‘골목경제 상황실’이라는 양날개 상황실을 가동.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맞추며 지역 발전의 교두보를 놓는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는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로 실·국장과 공공기관장 등

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공약 국정과제 전담팀(TF) 회의’를 열어 세 정부 국정과제 반영 전략을 점검했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대선공약의 국정과제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선공약 서울상황실’과 ‘골목경제 상황실’을 구성,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대선공약 서울상황실’은 광주의 7대

지역공약을 포함한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 중앙부처 등과 실시간 정책 협의를 진행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국정과제 수립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통해 광주현안이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7대 공약은 AI 국가시범도시 조성 추진,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과 과 실시간 정책 협의를 진행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국정과제 수립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통해 광주현안이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7대 공약은 AI 국가시범도시 조성 추진,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과 과 실시간 정책 협의를 진행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국정과제 수립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통해 광주현안이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극 추진, 국가 초고자자장 연구인프라 구축,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 등이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골목경제 상황실’도 함께 운영한다.

소비 진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현장 밀착형 정책 논의에 주력하며, 오는 18일 첫 회의를 열어 공공기관과 지역상권 간 매칭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20일에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 촉진 방안을 모색한다.

시는 또 광주지역 대선공약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 산업과 특성을 살려 대담하고 선제적인 국정과제 신규 제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면에 계속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李대통령, G7 참석차 출국...실용외교 첫발

한미·한일회담 가능성 주목

계 1박3일간의 일정을 소화한 뒤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첫날인 16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진다. 이번 G7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도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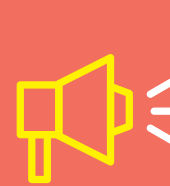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번 일정은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데뷔전이자 본인이 천명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첫발을 내딛는 무대가 된다. 이 대통령은 부인인 김혜경 여사와 함



지속·반복적인 노출로 움직이는 영상매체



지역·타겟 맞춤광고 가능



높은 주목도



저렴한 광고비

이번제류장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2층
(충흥동)

다음제류장
H|주|광주버스방송

광고매체 위치
운전석 뒤, 하차문 뒤 (총 2개)





버스 내부 모니터 광고 문의 ☎062) 223-6511